

KAIST 25세 최연소박사 탄생

이슬기씨 유럽 최대 전자연구소 채용

KAIST에 최연소 박사학위자가 탄생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24일 KAIST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기 및 전자공학과 이슬기 박사(25·사진).

1987년생인 이 박사는 서울과학고를 2년만에 조기 졸업하고 2004년 KAIST에 입학해 3년 만에 학부과정을 마쳤다. 이어 KAIST 대학원에 진학해 5년 만에 '웨어러블 헬스케어에 위한 저전력의 인체영역 센서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로 최연소 박사라는 영광을 안았다.

그가 학위를 일찍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학부 때부터 한 연구분야에만 매달렸기 때문. 이 박사는 학부 3학년 시절 '웨어러블 헬스케어'에 관심을 갖고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2위에 입상한 뒤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웨어러블 헬스케어용 시스템온칩(SoC) 및



관련 시스템 연구를 지속했다. 그 결과 세계적 학술대회인 '국제고체회로소자회의(ISSCC)'를 비롯해 미국·일본·유럽 등에

서 열린 학회에서 모두 11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10개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쌓았다.

이 박사는 유럽 최대 전자연구소인 네덜란드 아이멕(IMEC)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정식 채용돼 다음달부터 저전력 생체신호 검출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박사는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뒤 한국으로 돌아와 후배를 양성하는 데 힘쓰는 한편 이공계 여성과학자를 꿈꾸는 후배들의 멘토가 돼 창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전=이준기기자**